

# 조영남 저,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서울: 민음사, 2013)

전성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I. 왜 ‘중국의 꿈’인가?

중국은 과연 어떤 강대국이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이 질문 안에는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의문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사실’은 바로 중국이 이미 강대국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인가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국의 힘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공통된 ‘하나의 궁금증’은 중국이 어떤 유형 및 성향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에 따라 세계질서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웃나라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중국이 나아갈 방향과 지향할 목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強) 체제가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5세대 지도부’의 통치 슬로건 내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 중반 무렵 중국이 과거 제국 시대의 영광을 되찾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的偉大復興)’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 구체적 과정으로서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무렵에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의 완성 단계를 거쳐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중반 무렵엔 중국이 현대

화된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두 개의 백년(兩個百年)’ 목표나 ‘중화민족의 부흥’ 등은 기실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줄곧 제기되어온 것들이다. 다만 그것이 중국의 꿈으로 새로이 포장되어 구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추구해온 목표들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공통된 지향점으로 통합 제시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충격(western impact)’에 직면한 이래 다양한 근대화의 길을 모색해왔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혁명 등 갖은 시도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여곡절 끝에 중국은 공산당 혁명을 통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건국 후 추진된 마오쩌둥(毛澤東)의 사회주의 ‘건설’은 계급투쟁 방식에 치우침으로써 혼란과 낙후만 초래했을 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점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이 해결하지 못했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업적으로 간주된다. 다만, 개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은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 사이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은 G2 반열에 오르는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이제 중국의 꿈을 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꿈은 향후 10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중국을 이끌어 나갈 제5세대 지도부의 국정 목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것이 현 지도부의 정치 슬로건이자 비전이긴 하지만 그 함의는 보다 긴 역사적 시간에 걸친 원대한 이상(理想)과 관련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꿈에 대해 얘기하는가? 그 배경은 무엇이며, 꿈의 실체는 무엇인가? 과연 중국의 꿈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중국의 꿈은 다른 국가들과 갈등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 중국의 꿈이 실현되면 주변국, 특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꿈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글이 소개하고 논평하고자 하는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

래』(이하, 『중국의 꿈』 또는 ‘이 책’)는 상술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 저자(조영남 교수)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중국의 꿈』은 ‘중국의 꿈과 시진핑의 리더십’(제1부), ‘시진핑 시대의 정치개혁’(제2부), ‘시진핑 시대의 외교와 한중관계’(제3부) 등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평으로서 이 글은 제한된 지면 관계로 책의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주요 논점과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것이 이 책의 장점 중 하나인 풍부한 정보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지만 핵심을 파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 II. 시진핑의 리더십

제1부 ‘시진핑의 리더십’에서 저자는 ‘중국의 꿈’을 1960년대 미국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미국의 꿈’과 대비해 그 의미를 제시한다. 현재 세계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약 70년 전에 꿈꿔왔던 미래가 오늘의 미국이라면, 현재 중국은 과거 미국이 꿈꾸는 미래와 같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중국 지도부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통치 기간인 향후 10년간의 과제를 순조롭게 잘 완수할 수 있느냐에 일차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자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치발전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 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대미관계의 정립 등이다.

문제는 과연 시진핑 정부가 이런 과제를 해결할 조건과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유리한 조건과 제약 요인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기반으로는 최근의 지도부 교체가 보여주듯 엘리트 정치가 안정화되고 법치 등 제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고도성장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 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증대된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중국의 꿈 실현을 지체하거나 어렵게 할 제약 요인들도 있다. 첫째, 발전 전략의 전환을 통해 최소 7%대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기득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빈부격차를 비롯한 각종 민생문제인데, 이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골칫거리다. 셋

째, 대내적으로 민족주의 등 보수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외적으로 중국위협론의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처해 합리적인 관리와 새로운 외교정책 수립을 도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에서 개인 차원이든 지도부 차원이든 시진핑 정부의 성향은 대략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저자는 설명한다. 먼저 정치적 보수성이다. 중국 지도부가 정치개혁보다는 사회개혁을 우선시하고, 보편적 민주보다는 중국식 민주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적극적인 시장주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sup>1</sup>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시진핑 총서기를 ‘실용적 민족주의자’로 규정한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지만,<sup>2</sup>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실리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III. 정치체제의 개혁과 방향

상술한 분석의 전제에서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정책노선은 과거 10년과 마찬가지로 미래 10년의 정책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후진타오 시기 정치개혁은 지방의 과감한 개혁 시도를 통제하고 당내 개혁에 국한하는 등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시진핑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도부의 성향도 그러하지만 국내외 여건도 위기관리나 체제 안정에 보다 치중하게 하는 등 정치개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민주에 대한 기층 인민의 개념도 여전히 개인의 ‘실익’ 추구 차원에 머물러 있고,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이 요구하는 심각한 정치 문제들이 민주개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진단한다.

<sup>1</sup> 이런 예측은 2013년 11월 개최된 13기 3중전회에서 중국이 ‘시장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고 ‘개혁의 심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개혁 방침을 천명한 데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sup>2</sup> 중국이 규정하는 핵심 이익이란 주권, 안전, 영토 외에 통일, 안정, 발전 등이 포함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 299~306페이지를 참조할 것.

물론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장기 계획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외의 신뢰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자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변화라는 점에선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런 측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객관적 상황은 중국 정치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후술하는 ‘평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IV. 중국의 외교노선과 한중관계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 중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난다. 2010년 전후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매우 공격적이고 투쟁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중국의 국제 위상을 계기로 중국 국내에서 전개된 도광양晦(韜光養晦)<sup>3</sup> 방침 폐기 여부 논쟁과 맞물려, 국제사회에서 ‘공세적 중국(assertive China)’에 대한 찬반 논쟁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정책’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행태’는 달라진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정책의 ‘미세 조정’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면, 기존 정책의 기초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 ‘핵심 이익’이 갈수록 강조되고, ‘신형 대국관계’의 개념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해양 강국의 수립을 공식 목표로 설정하고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측컨대, 이런 추세는 비록 점진적이거나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만,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원론적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정책의 ‘유지’로 나타날 수도, 또 ‘변화’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sup>3</sup> 도광양晦란 “빛을 감추고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 또는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비공식 외교 방침으로 알려져 왔다(이 책, 8장).

한다.

이런 관점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한 중국에 대해 대북 정책이 변화되었는지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유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자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 또는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할 것인가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정책 3중주’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sup>4</sup> 첫째, 한중 양국이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관여(포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지속 등을 통해 안보적으로 북한 위협과 중국 부상에 대비하는 ‘위협 분산’ 전략을 취할 것을 강조한다. 단, 그것이 결코 ‘반(反)중국 안보 연합’이 아님을 대전제로 삼아야 함을 지적한다. 셋째, 동북아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다자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패권 행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물론 이 역시 ‘중국 반대’ 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정책 3중주는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주변국으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정책 실효성의 관건적 요소가 바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 V. 평가와 함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중국의 모습은 시장 경제의 심화, 보수 정치의 유지, 공세적 대외 행태 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기존 노선을 가속하고,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 그리고 대외 정책에선 미세 조정이 이루어져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한마디

<sup>4</sup> 이는 저자의 다른 연구서(조영남, 2012)에도 잘 나와 있다.

로 새로운 변화보다는 지속성에 무게를 둔 분석이자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중국의 국내외 정책 등 향후 진로는 그 이전 지도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및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과 관련해, 후자는 시진핑 지도부 하의 중국을 그 이전 지도부와 구분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차이나 3.0’이라는 표현과 같이, 중국이 과거 사회주의 30년과 시장화 개혁 30년을 거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유럽외교관계협의회, 2013). 마오 시기, 덩샤오핑 이하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쳐,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대에 중국이 돌입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두 관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시대의 흐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전자인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부)은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 시대부터 중국이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겪게 될 거라는 분석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건적 시점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강조된 중국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염두에 둔다면 상술한 불일치 현상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과연 기존 정책노선의 지속만으로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꿈이 몇 가지 원대한 지표의 달성에 있다면 몰라도, 질적 수준에서 중국 사회의 획기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책의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을 읽게 된다.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이런 중국의 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꿈』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중국 관련 전문서적으로서 유용성을 지닌다. 첫째, 이 책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최근 중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성이 높다. 아마 이 책은 국내외에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단행본에 속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석 및 참고문헌에서 나타나듯이 풍부한 최신 자료를 통해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다. 둘째, 이 책은 엄밀한 분석에 근거한 학술

저서의 형식을 띠지만, 서술 방식과 표현 등에서 학부 수준의 지식과 중국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내용 파악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쉽게 써져 있다. 셋째, 현재 중국의 상황, 문제점, 정책 기초, 변화의 방향 등 다양한 주제 및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그것은 “중국의 꿈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 함의도 적지 않다. 이 책을 계기로 중국의 꿈이 실천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투고일: 2013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 참고문헌

- 유럽외교관계협의회 저. 중앙일보중국연구소 역. 2013. 『차이나 3.0: 우리는 차이나 3.0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서울: 청림출판.
- 조영남. 2012. 『용과 춤을 추자: 한국의 눈으로 중국 읽기』. 서울: 민음사.